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2호 【루계 제25956호】 주체107(2018)년 3월 2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경공업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경공업부문이 혁명적인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1.4분기,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배출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생활향상은 총적인 투쟁목표로 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시책들도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을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가장 성대하고 의의깊게 빛내이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

경공업은 인민생활과 잇닿아있는 우리 혁명의 2대전선의 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풀들여 마련해놓은 인민소비품생산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있으며 경공업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와 풍부한 경험도 있다. 경공업부문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여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갈때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9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질수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경공업전선에서 울리는 자력갱생의 거세찬 동음, 우리의것으로 생산된 하나하나의 인민소비품들은 적대세력들의 정수리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는 불뢰성으로 된다. 지금이야말로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 경제전선전반에 활력을 부어주고 우리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떨쳐야 할 때이다.

경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새겨안고 올해의 총진군을 자랑찬 승리와 비약적인 성과로 수놓아가야 한다.

경공업전선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오늘날 경공업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중앙의 권위를 옹위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다.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생활에서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투쟁해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소비품생산성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자.

이것이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신념으로 되여야 한다. 누구나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자기의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겠다는 각오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맥박쳐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헤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을 제일 당당하게 현실적으로 관철한 국방과학전사들처럼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을 지켜선 자각과 영예감을 깊이 새겨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종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조건이 불리하고 시련이 겹쌓일수록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공업부문의 주체화,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며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지방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지방공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각지의 시, 군들에 일떠선 식료공장, 직물공장, 일용품공장 등 중소규모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만가동으로 돌려도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각 도, 시, 군들에서는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에서 지방공업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전국의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어떻게 하나 자기 지방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독점지표들을 개발하고 그에 토대하여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을 시대가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다. 모든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있는 우시군, 연탄군의 경험은 새로운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지방공업을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때 군내 살림살이를 부단히 늘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앙기관,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고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어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 만가동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중앙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사이에 자매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중앙공업공장들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자체로 해결하기 힘든 설비와 부속품, 원료와 자재문제를 풀어주고 기술적으로 잘 도와주어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공업이 나라의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의 질의 높이는 인민에 대한 헌신의 높이, 애국의 높이이다. 인민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 질이 낮은 소비품을 생산하는것은 인민관이 부족한 표현이다. 애국, 애민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생산하는 하나하나의 제품에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담아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는것은 현시대의 중요한 요구이다. 경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최단기간내에 세계를 압도하고야말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야심을 가지고 명제품, 명상품의 개발과 생산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생산자대중의 투쟁열의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 경공업부문의 전체 일군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당의 경공업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들끓는 전투장에서 현장지도, 화선식정치사업을 본때있게 해나가야 한다.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당의 경공업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 생산을 부단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각 도,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승산이 있는 한두개 단위가 아니라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을 시대가 바라는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아래단위들의 실태를 손금보듯 장악하고 그에 맞게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걸린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경공업공장들이 인민소비품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련관부문에서는 인민생활을 함께 책임졌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경공업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전기와 석탄, 화학제품 등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경공업전선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앞길에 애로와 난관은 적지 않지만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주체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당의 경공업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있기에 경공업발전전망은 확고하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에서 인민생활향상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김일성화축전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경모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해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다.

주체107(2018)년 4월 중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성, 중앙기관들과 무력기관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기간 각 도들에서도 불멸의 꽃전시회가 진행된다.

태양절을 환희롭게 장식하게 될 제20차 김일성화축전은 사회주의강국의 천만년미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총공세를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무연알탄생산공정건설 완공, 시험생산에 성공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또 하나의 승전고가 울려퍼졌다.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덩지큰 가스발생로용무연알탄생산공정의 이설 및 개조공사를 전부 끝내고 시험생산에 진입하여 단번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과 굴지의 야금기지 황철에서는 무연탄가스발생로의 운영을 한계단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질좋은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게 되였다. 무연알탄생산공정은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건설되여 많은 로력과 전기, 연유를 절약하고 압연공정의 가열로들을 만가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투쟁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무연알탄생산공정의 이설 및 개조공사를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무연알탄생산공정을 가스발생로와 가까운 곳에 이설하는것과 동시에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개조하고 제한된 부지면적에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이번 공사는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당지도소조성원들은 공사의 중요성에 맞게 지휘부를 내오고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을 벌려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동시에 기초공사로부터 설비이설 및 개조, 조립공사 등에 대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주도세밀하게 작전하고 내밀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단계별 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일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기초공사를 맡은 단위들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쳤다.

주체철직장과 용광로2직장, 유도로직장의 로동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2기의 건조로와 성형기, 쌍축혼합기를 비롯한 집채같은 설비들을 배치할 수백㎥의 기초파기공사를 불과 3일동안에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 자원하여 돌격대에 망라된 건설자들은 강추위속에서도 기발한 건설공법을 받아들여 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한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끝내였다.

혁신의 불길은 설비이설 및 개조공사를 맡은 단위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제기된 과제를 제기일내에 수행하였다.

무연알탄생산공정 성형기의 재가공 및 보수정비를 비롯하여 여러 설비들의 이설 및 개조공사를 맡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맡은 작업과제를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내였다.

특히 조강직장의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천정기중기를 만가동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설수록 설비조립전투에 총력량이 집중되였다. 이 과정에 설비조립공사가 시작된지 한달 남짓한 기간에 부분별무부하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뒤이어 지난 9일 온 련합기업소의 관심속에 총시운전이 진행되고 여러 기술적지표들이 용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것이 확증되였다. 무연알탄생산실수률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려 가스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있던 수백m길이의 벨트콘베아로선에 있던 전동기와 감속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들이 줄어들어 전력소비량이 근 절반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가스발생로와 가까운 위치의 작은 면적에 이 공정이 일떠섬으로써 로력을 절약하고 생산지휘를 신속정확히 할수 있게 되였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가는 황철로동계급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투쟁정신과 일본새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현지보도반

영농물자수송 활발

철도운수부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영농물자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철도성적으로 지난 21일현재 3월 영농물자수송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철도성 정치국의 지도밑에 성의 일군들은 올해농사에 요구되는 영농물자들을 제때에 원만히 수송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물동확보상태를 수시로 알아보고 배차조직과 집중수송렬차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 한편 영농물자수송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구간들에서 첨승도하고 화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내밀면서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대중을 증송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수송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영농물자수송렬차들을 우선적으로 떠나보내기 위한 정연한 사령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좋은 성과를 안아오고있다.

개천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화차회귀일수를 줄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수송실적을 올리고있다.

국의 일군들은 영농물동수송기관차들을 성능이 좋은 기관차들로 고정하고 수리정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는것과 함께 상하차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사회주의협동벌로 더 많은 물동을 신속히 떠나보내도록 하고있다.

신의주기관차대를 비롯한 국안의 기관차대, 객화차대 수송전사들은 영농물자수송을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내부예비탐구동원으로 기관차, 화차수리정비시간을 단축하여 수송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특히 신의주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운행중 자검자수를 실정에 맞게 착실히 진행하면서 철길의 기술상태에 따르는 앞선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여 영농물자수송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평양철도국의 일군들은 화차머무름상태와 영농물자상차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그에 따르는 렬차운행계획을 면밀히 세우고있다. 중요역의 수송전사들은 차풀이와 차무이를 신속히 하고 집중수송렬차들에 대한 검사를 기동적으로 짜고들어 영농물자수송렬차들을 제때에 떠나보내고있다.

청진철도국과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영농물자수송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청진철도국의 일군들은 운전지휘원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영농물자수송렬차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짐신기와 하차작업이 진행되도록 모든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세워가고있다.

함흥철도국에서도 앞선 차갈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기관차들의 실동률을 높이고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영농물자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두줄기 궤도우에 높이 울리는 영농물자증송의 기적소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생산된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우리 식의 흙경화제 개발

최근 룡악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실리가 큰 흙경화제를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리과대학 화학부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창조적협조밑에 개발한 이 흙경화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고있으며 누름세기, 내동성과 같은 질적지표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우리 식의 특색재료이다.

건설부문에서 요구되는 흙경화제가 우리 식으로 개발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대로 우리의 두뇌와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또 하나의 든든한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건설을 끊임없는 발전에로 떠미는 추동력이며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흙경화제는 세멘트나 모래, 자갈 등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자연상태의 흙을 리용하여 도로나 공공건물, 소층살림집 등을 건설할수 있게 하는 재료로서 첨단재료, 미래의 특색건재로 주목되고있다.

세계적으로 흙경화제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이 과정에 각이한 흙경화제들이 개발되여 도로나 건물 등 여러 건설분야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룡악산기술연구소의 연구사들과 일군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요구하는 흙경화제에 대한 연구종자를 쥐고 최근년간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연구사 박진수동무를 비롯한 청년과학자들은 연구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방조밑에 문헌연구를 심화시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특색환경기술로 인정되고있는 흙경화제와 관련한 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왔다.

리과대학 화학부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룡악산기술연구소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사심없이 도와나섰다.

두 연구집단이 서로 합심하여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있는 물질들을 출발원료로 하는 복합흙경화제의 제조방법이 확립되고 흙과의 합리적인 배합비와 질적지표들이 확정되였으며 그 적용가능성이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그리하여 제조원가가 매우 눅고 제조공정이 간단한 우리 식의 흙경화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게 되였다.

도입단위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흙경화제를 흙에 섞어 세멘트, 모래, 자갈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 흙블로크를 생산하여 건물건설에 리용한 결과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룡악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흙경화제를 흙에 섞어만든 흙블로크 등을 보아주시면서 흥미있다고, 흙블로크들의 강도가 높기때문에 소층살림집을 얼마든지 건설할수 있고 흙에 흙경화제를 섞어 도로를 포장할수 있으면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흙경화제를 리용하여 소층살림집을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면 세멘트를 리용할 때보다 원가를 70%정도 낮출수 있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다면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룡악산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리과대학 과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치면서 흙경화제를 리용하여 도로를 포장하는데 쓸수 있는 전용설비도 연구제작하였다.

우리의 과학자들이 흙경화제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훌륭한 과학기술성과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룡악산기술연구소에서는 지금 여러 부문, 단위들과의 적극적인 련계밑에 원료원천이 풍부하고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실리가 큰것으로 하여 도입전망이 매우 좋은 우리 식의 흙경화제의 개발성과를 소층살림집건설, 도로포장 등의 분야에 확대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력사의 새벽길과 더불어 빛나는 민족자주의 기치

조선국민회결성기념일에 즈음하여

조선국민회결성 선포!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세기가 넘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지원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력사의 험난한 새벽길을 헤쳐나가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자주의 길로 이끌어오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조선국민회는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우리 나라의 애국자들이 무은 조직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습니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민족수난의 시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항방없이 헤매고있었다.

독립운동자들은 뚜렷한 투쟁방략도 없이 사대와 외세의존에 물젖어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가 하면 형형색색의 명칭을 가진 반일독립단체들은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사분오렬되여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인민대중에게 옳은 투쟁방략을 밝혀주며 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민족이 나아갈 투쟁의 길을 모색하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슴아픈 체험과 진지한 탐구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였다.

그것은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켜 원쑤를 멸망시킬만큼 힘을 키우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수 있다는것,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될수 없기때문에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이였다.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홰불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내세운 지도적지침인 지원의 사상!

바로 여기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맥박치고있었다.

나라의 독립을 외세의존이나 청원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자면 먼저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울 혁명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조직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추진시키시였다.

주체5(1916)년 5월 성천군 대봉리 봉두산모임에서 빠른 시일안에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야수적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반일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에게 지하혁명조직결성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는 한편 몸소 평양일대와 평안도, 황해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 혁명조직의 핵심으로 될 성원들을 비밀리에 키우시였다.

더 많은 군중을 계몽각성시켜 묶어세우기 위하여 선생님께서는 학교계와 향토계 등 합법적인 조직들을 광범히 조직운영하도록 하시여 혁명조직결성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축성해나가시였다. 동지규합과 대중교양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조직의 핵심골간이 수많이 자라났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이 자주적인 반일애국력량으로 튼튼히 결속되게 되였다.

주체6(1917)년 2월 지하혁명조직결성을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강력한 지하혁명조직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함의를 보시였다.

예비회의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직의 명칭을 《조선국민회》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작성하신 조선국민회의 투쟁목적과 과업, 활동규범과 취지서의 초안을 토의에 붙이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성격과 독립의지가 맥박치는 김형직선생님의 제안을 일치하게 지지찬동하였다.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마침내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결성을 선포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결성은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숭고한 뜻이 담긴 견결한 민족자주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로써 우리 인민은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워 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민족자체의 조직화된 힘에 의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직결성후 조선국민회는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력한 중추적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자주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갔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에 의하여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국민회 조직이 확대강화되고 반일운동이 적극화되는데 당황한 일제는 《조선국민회사건》을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옥중생활을 하게 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철창속에서도 민족해방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중단하지 않으시였다. 일제교형리들의 악착한 고문속에서도 지난 기간 자신께서 벌려오신 혁명활동과정과 종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새로운 무산혁명방략을 구상하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는 더욱 백배해졌다.

감옥에서 출옥하시였을 때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제대로 걸으실수 없는 형편이였다. 허나 지금 제 한몸을 생각하고 걸음을 지체하면 조선독립이 그만큼 멀어진다고,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떠나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3.1운동을 계기로 옳바른 투쟁방략을 세우고 선진사상의 기치밑에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 절박한 요구도 김형직선생님께서 무산혁명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청수동회의에 이어 력사적인 판전회의를 소집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회의에서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자주사상에 기초하여 철저히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며 무장한 원쑤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무산혁명의 근본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조선독립달성의 중요한 요인은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일제와 맞서싸우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방도를 무장투쟁에서 찾으신것은 지원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시려는 그이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애국의지의 발현이였다.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안아오리라는 굳은 결심을 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헤쳐가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으신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의지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압록강의 맹세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여가실 위대한 장군님의 룡남산의 맹세로 꿋꿋이 이어졌으며 오늘은 주체의 길, 사회주의한길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로 더욱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아름드리거목도 떠받드는 뿌리가 있고 용용한 대하도 그 시원이 있기마련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대하여 하신 뜻깊은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조선혁명에 관통되여있는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사상의 시원입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정녕 이 한편의 노래는 저 멀리 력사의 새벽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과 민족을 백승에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의 계속혁명의 신조였으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후손만대가 영원토록 높이 울려갈 조선혁명의 주제가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길, 투쟁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하여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새겨진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자강으로 위용떨치는 이 땅에 반드시 최후승리의 봄을 안아올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원남
사진 김광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학당골혁명사적지에서—

소나무옹이에 대한 이야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혁명가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3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과 함께 봄의 싱그러운 대기가 감도는 정원을 거니시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은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말머리를 떼시였다.

순간 일군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집무실에서의 사색을 정원에서도 계속 이어가고게시기때문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이런 물음을 제기하시였다.

깨끗한 량심은 거짓도 뜬소문도 협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본적이 있는가.

일군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대답하고,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깨끗한 량심의 주인으로 될수 있었으며 자각적인 혁명가로 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깨끗한 량심의 주인, 자각적인 혁명가,

참으로 뜻깊은 가르치심이였다.

일군은 아름드리소나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심장깊이 새기였다. 소나무의 줄기에 박혀있는 옹이들도 근원을 땅속에 내린 뿌리에 두둣이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절개와 량심도 령도자에 대한 고결한 도덕의리와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에 뿌리를 두어야 굴함이 없고 순결함을.

그렇다. 항일혁명선렬들이 혁명승리의 진리로 간직한 불굴의 신념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였다.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투사들은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올수 있었다.

소나무옹이가 전하는 이야기,

오늘도 이 이야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천만군민모두에게 고귀한 혁명의 철리를 깊이 심어주고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으로 일관된 혁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남길수 있다고.

본사기자 림정호

기쁨과 보람—인민을 위한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일에 한몸바치며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

이런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일군이다.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이라는것이 오늘 우리 당의 의지이다.

직업적인 혁명가인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당의 의도를 충정으로 받드는 일보다 더 중차대한 과제는 없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의도가 현실로 꽃펴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실천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이라면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들의 생활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진심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의 충복이 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인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헌신하는 일군,

자기가 인민의 충복답게 일하고있는가를 매일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총화하는 습관을 체질화한 일군,

바로 이런 일군이 우리 당의 뜻대로 사는 일군이며 이런 일군이라야 대중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을수 있고 사람들의 심장에 남는 참된 일군이 될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일군들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운명을 함께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일러주신 한 일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일군이 사업상용무로 조동되여갈 때 있은 일이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고 대중의 신망속에 살았는지 술한 사람들이 찾아와 아쉬워하면서 눈물속에 그를 바래웠다.

이런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일군처럼 대중의 마음속에 살고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불리우는 참된 일군, 당이 바라는 진짜배기일군이라고 값높이 일러주시였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당에 충정다하도록 키워나가는것이야말로 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한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바로 여기에 일군들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일군만이 이런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 있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새로 배치되여간 기관의 당원들의 정치생활경위를 료해하는 과정에 한 당원의 가슴에 맺혀있는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30여년간 당을 따라 꿋꿋이 걸어오면서 일을 잘하고있는 당원이였지만 나쁜놈들의 모해가 그의 가슴에 응어리를 지게 하였던것이다.

사람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문제를 끝까지 풀어주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한 일군은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걷고걸으며 사람들을 만나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료해하여 끝까지 풀어주었을뿐아니라 높은 국가수훈을 받을만 한 공로자라고 확신하고 그에 대한 훈장수훈을 제기하였다.

그 일군의 자료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하도록 키워나가는 여기에 일군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군의 자질을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 일군이 참 좋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그 당원에게 높은 국가수훈이 수여되였다. 감격에 북받쳐 오열을 터치는 그 당원을 사람들속에서 바라보는 당일군의 얼굴은 기쁨과 보람으로 유난히도 환하였다.

어머니는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는것,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모두 당의 두리에 묶여세우는 원칙에서 결함이 있거나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도 따뜻이 대해주고 적극 도와주어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는것,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정과 열의 세계를 뼈에 새긴 일군들은 사람들모두를 자기의 살붙이처럼 사랑하고 세간번 자기 자식을 돌보듯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기마련이다.

바로 이런 훌륭한 일군들에 의하여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가 날로 높아지고 인민들의 심장에서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고있는것이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위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본사기자 량순

김영남동지가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

나는 당신이 로씨야련방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7(2018)년 3월 20일 평양

기업소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해간다. —2.8비날론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방문기

숭고한 뜻 전하며 설레이는 푸른 숲

장산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장산혁명사적지를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못 잊을 그날의 사연을 전해주듯 봄의 그윽한 정서속에 푸르러 설레이는 장산의 유정한 모습이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웅장화려해질 평양의 래일을 위하여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고 정성껏 가꾸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장산에는 소소리높이 자란 소나무와 아카시아나무, 세잎소나무를 비롯한 여러수종의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었다.

수많은 참판자들을 안내하느라 여념이 없는 장산혁명사적지관리소 소장 변영식동무가 우리의 눈에 띄였다. 우리와 만나 장산의 새 력사가 시작되던 잊을수 없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주체46(1957)년 3월 31일, 그날은 일요일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산은 변변한 나무 한대 없는 벌거숭이나 다름없었다. 비에 씻기고 바람에 날리여 산봉우리마저 내려앉은듯싶은 장산마루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은 쓰리고 아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장산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폭격에 의하여 나무 한대 성한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장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지금 당에서는 조국의 산과 들을 산림이 우거지게 하는 사업에 청년들이 앞장설것을 호소하고있다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나무심기에서 모범이 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나무심기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칠 결의가 충만되여있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나무모를 다루고 심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적요구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장산에 온것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셨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해당부문 일군들을 친히 부르시여 승리한 조국의 산과 들에 심을 나무모를 키울 양묘장을 꾸리고 유능한 일군들을 파견하도록 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심게 되는 나무모도 전쟁시기부터 애지중지 키워온 귀중한것이다. 그러므로 기술규정의 요구를 잘 지키지 못하여 귀중한 나무모를 죽여서는 안된다. 나무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성껏 심어야 하겠다. …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수 나무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푸른 숲 설레이게 될 장산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몸소 삽을 드시고 나무를 심으시였습니다.》

잊지 못할 그 봄날의 감동깊은 사연에 대하여 일군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뿌리내린지 얼마 안되는 한그루의 애솔포기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이 나무가 애솔포기에 지나지 않지만 멀지 않은 앞날에는 거목으로 푸르청청 자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그루 애솔포기에서 푸른 숲 우거질 장산의 래일을 그려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심중을 되새기며 우리는 그이께서 나무를 심으시였던 곳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력사의 그 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몸소 심으신 아카시아나무들이 억센 뿌리를 내리고 봄바람에 하느적거리고있었다. 아지를 휘저으며 설레이는 소나무들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듯싶었다.

소나무숲이 우거진 장산마루의 전망대에 오른 우리의 눈앞에는 날로 륭성번영하는 평양의 일각이 한눈에 안겨왔다.

숲속 여기저기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사적지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정성껏 나무를 가꾸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군은 나무 한그루 변변한것이 없던 장산이 오늘과 같이 소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여러종의 나무들로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격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확신하였다.

이 땅에 푸른 숲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여기 장산의 솔숲, 아카시아숲과 더불어 영원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전광남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개성시 월정리당조직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주별, 월별계획에 따라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독보, 연구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당보와 출판물들에 실리는 기사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휴식참을 리용하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독보를 진행하고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한 투사들의 투쟁기풍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한다면 극복 못할 시련과 난관이 없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받들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들끓는 작업현장들마다에서 실속있게 진행되는 화선식정치사업은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진청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화학제품생산을 늘일 불같은 열의

새로운 린비료공장건설과 그 전망

건설지휘부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가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순천린비료공장이 일떠서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새로운 린비료공장건설과 그 전망을 놓고 건설지휘부일군들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순천지구에 새로 일떠세우는 린비료공장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현장책임자 신안선: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더 많은 린비료를 생산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모든 건설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이 불타는 애국충정주시고 건설력량과 설비,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순천린비료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종합분과장 김명수: 린비료는 농작물들이 영양원소들을 잘 빨아들이게 하고 빛합성을 촉진시키며 비바람과 병해충의 피해도 막을수 있게 하여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순천린비료공장에서 우리의 자원에 기초하여 생산하게 될 비료는 년간생산량도 높아 전국적인 린비료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고 각종 농작물의 생산량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기자: 현재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가.

신안선: 순천린비료공장건설은 기본생산구역과 보조생산구역 등의 현대적인 생산공정들과 각종 보장시설들을 일떠세우고 수백종에 수천대의 설비들을 제작조립해야 하는 어렵고도 방대한 공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모든 건설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이 불타는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지니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리일남동무를 비롯한 시공분과의 일군들이 실정에 맞게 시공조직과 지휘를 구체적으로 짜고들고 대상설비와 골재보장을 맡은 김순남, 정철순동무들이 수천리길을 발이 닳도록 오가며 주요설비들의 제작설치와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남흥화학설계연구소의 김종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피타는 탐구와 고심어린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 주요대상들에 대한 설계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건설건재공업성아래 여러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원료저장 및 가공공정, 암모니아저장 및 기화공정, 물랭각탑과 압축기실 등 20여개 대상공사를 맡아 보람찬 건설투쟁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다.

순천린비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집단주의위력으로 구조물해체와 토량처리, 지대정리를 힘있게 내밀면서 린산 및 린안비료생산공정과 종합조종실, 급수펌프장을 비롯한 10여개 대상공사에 계속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순천린비료공장건설에 떨쳐나선 평안남도의 돌격대원들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맡겨진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김명수: 굴착기운전공인 리영호동무와 대형화물자동차의 운전사들인 김철만, 김철성동무들이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높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박경만, 림승철동무와 착암공 김광호동무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하여 전체 공사장적으로 수만㎥의 구조물해체와 17만여㎥의 토량처리 및 지대정리, 많은 량의 기초굴착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는 로력적위훈이 창조되였다.

기자: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의 공사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면 좋겠다.

신안선: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건설지휘부에서는 비료생산공정건설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린비료를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기 위한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당면하여 능력이 큰 골재선별기를 성과적으로 제작완성하고 생산구역의 수십만㎥에 달하는 토량처리와 구조물해체, 지대정리과제를 다음달까지 무조건 완수하겠다.

특히 건식공법과 선진과학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 30여개 대상의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건축공사를 줄기차게 내밀어 가까운 시일안에 현대적인 린비료공장의 면모를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겠다.

김명수: 철도성, 전력공업성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장구내철길건설과 대용량변압기증설을 일정계획대로 다그치며 기본생산구역에 대한 기초굴착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남흥화학설계연구소에서는 가까운 시일안에 맡은 설계과제들을 모두 질적으로 완수할 목표밑에 기술력량을 총집중하고있다. 대상설비제작에 떨쳐나선 련관단위들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맡은 과제수행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신안선: 우리 전체 건설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순천린비료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움으로써 당에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 올리겠다.

본사기자 정순성

결사관철의 기풍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단계별과업을 제때에 원만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전투장마다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공사 첫시작부터 로력조직과 설비리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여 구조물해체와 토량처리, 지대정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도록 하면서 구내도로형성, 지하관로망과 저탄장공사, 대형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 골재장 및 혼합장건설을 립체적으로 내밀었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구내도로지반공사에 이어 산소분리기설치를 위한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화학건설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도 저탄장의 수십개 기둥조립과제를 수행하고 골재장과 혼합장건설을 앞당겨 끝내였다.

전체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방대한 량에 달하는 구조물해체와 지대정리, 구내도로지반공사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건설자들은 10여개 건축대상들의 기초굴착 및 콩크리트치기과제를 빠른 속도로 해제끼였다.

겨울철의 맵짠 강추위는 필승의 신심에 넘쳐 질풍같이 내달리던 이들앞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곳 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는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당에 충정의 보고를 삼가 올리려는 강렬한 지향이 활화산마냥 불타올랐다.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서라도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대상별로 력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보온덧집을 지어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정치분과에서는 경제선동에 힘을 넣어 건설장의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호소성이 강한 직관선전물들을 집중배치하여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였다.

화학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보온덧집을 짓고 물을 끓여 혼합물을 이기고 겨울철조건에 맞는 양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다그치였다.

안주화학건설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플라즈마절단기를 환원복구한 기세로 저탄장에 대한 트라스 및 천정기중기밑보제작에 달라붙어 일자리를 푹푹 내였다.

봉학화학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은 메타놀저장조에 대한 지붕판제작전투에서 집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전투원들은 순환수뽐프장 벽체축조전투에 진입하여 련일 실적을 올리였다. 성산광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여러 대상에 대한 기초굴착과 착암작업을 끝번에 이어 련속적인 공격전을 들이대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산소분리기조립 및 건축공사장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와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수십t에 달하는 장치물조립을 비롯하여 맡은 대상과제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한 기세로 련속적인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이런 철석의 신념을 안고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전투원들은 맡은 과제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총공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촉매를 국내원료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가지 촉매들을 우리의 원료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주체비료생산을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며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 촉매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비료생산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촉매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련합기업소앞에 지닌 사명을 다시한번 자각하고 촉매를 우리의 원료로 생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비료생산의 매 공정마다 쓰이는 여러가지 촉매를 빠른 기간안에 우리의 원료로 생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실패가 거듭될 때에도 이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새겨안으며 분발해나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에 절실히 필요되는 여러가지 촉매들을 우리의 힘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새로운 힘과 용기가 용솟음쳐올랐다.

그러던 어느날 촉매연구소 실장 위재근동무가 탄산가스정밀탈류제를 연구하여 련합기업소의 관심을 모았다.

촉매연구소의 분위기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연구사 김운호박사는 년로한 몸으로 질소비료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합성촉매를 우리의 원료로 생산하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지난 시기에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던 촉매를 여러번 재생하여 쓸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여 나라에 적지 않은 리익을 주었다.

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발벗고나섰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천연자철광의 화학조성을 분석하고 암모니아합성촉매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

촉매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서로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촉매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력을 현저히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자각을 안고 비료생산정상화를 위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경철

탄산소다생산공정개건 추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략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리용하는 석탄건류공정을 꾸리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여 메타놀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의 생산을 늘이는것은 화학공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이미 꾸려진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면 우리 나라에 풍부한 회망초를 리용하여 기초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다.

지금 굴지의 화학공업기지와 과학연구기관에서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내각과 화학공업성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면서 통이 크게 일관을 전개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일군들은 현지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여러 단위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수차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남흥로동계급은 공사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탄산소다생산부문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와 현존생산공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떨쳐나섰다. 소다직장에서는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탈흡수공정을 보강하여 탄산소다생산을 늘일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회망초직장과 분쇄직장의 로동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부속품과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사업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전동기와 감속기들을 새로 보충완비하여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침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새로운 망초분리공정과 결정화공정확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박력있게 추진하고있다. 류안직장에서는 랭동압축설비를 원상복구하면서 랭동공정과 결정화공정, 관로망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전력공급 및 자동화계통을 합리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하루빨리 개건완비하고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농업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최영조

집체적지혜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혁신적인 일본새가 기적을 낳는다

평양기계화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최근 평양기계화사업소가 모든 면에서 일 잘하는 단위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정신력발동에도 묘술이 있다

이곳 사업소일군들의 경험에서 중요한것은 난관극복의 방도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찾고 이 사업을 자기 단위의 구체적조건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내밀어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이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쥔 사실을 놓고보자.

사업을 갓 시작한 최철화지배인에게는 경영관리에서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실무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않았다.

사실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물질기술적토대가 다른 단위에 비해 미약하다보니 로동자들은 맡은 작업과제수행에서 마력을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이 원인을 종업원들속에서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데서 찾았다.

자기의것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그것을 사랑하고 빛내이려는 마음도 생기기마련인것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축사건설과정이 그 실례로 된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종업원들은 머리를 저었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어떻게 보장하며 당장 겨울이 닥쳐오겠는데 수백㎡나 되는 부지에 돼지우리와 오리사는 어떻게 건설한단 말인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것이였다. 그러나 두몫, 세몫 일감을 제끼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지배인의 이신작칙의 산모범은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말없는 돌격구령이였다.

한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일떠선 축사에서 얼마후부터 적지 않은 량의 고기가 생산되여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이바지하기 시작하였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공사가 불이 번쩍 나게 결속되고 그 덕을 보게 되자 종업원들의 열의는 높아졌다.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얼마든지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진 종업원들의 투쟁기세는 날을 따라 높아졌으며 이들의 애착심이 깃든 소중한 창조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몇해동안에 생산건물의 면모가 일신되고 기술장비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져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수백㎡에 달하는 양어장이 번듯하게 정리되여 한해에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축사의 규모도 4년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나 후방공급사업에서는 놀라운 전변이 이룩되였다.

기업관리를 책임진 일군은 단순히 생산조건이나 지어주고 그 결과만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 대중의 마음부터 움직일줄 아는 일군이여야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과학적인 타산과 실리보장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를 투자하여 열, 백을 얻는 과학적인 타산으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 최철화지배인의 기업관리방식을 놓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전기절약형으로 지향하고있는 사업소의 전반적생산공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언제인가 지배인은 산소수소발생기앞에서 걸음을 뗄수 없었다. 전력소비가 크고 수리보수에 많은 품이 드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전기절약형생산공정확립이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오늘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사업소의 실태는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었다. 그는 불합리한 산소수소발생기를 대담하게 폐기하고 대신 전력소비가 낮은 설비를 도입할 결심을 내리였다.

새 설비를 도입하니 우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전력소비가 1/4로 낮아진것도 좋았지만 철판절단속도가 종전에 비해 몇배나 높아지고 이동이 편리하여 로동자들로부터 좋은 반영이 제기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일군들은 전기절약형생산공정확립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지난 시기 리용하던 설비에 비해 전력소비가 1/3밖에 안되는 용접기를 받아들이고 철판절단설비를 개조하여 적은 동력으로도 작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몇해전부터 국가전력망에 의거하지 않으면서도 맡겨진 중요대상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놀라운 성과속에는 일군들의 이런 창조적인 사색과 실천이 깃들어있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이들은 철근가공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제작원가를 1/4로 줄이고 많은 량의 불수강을 절약하여 나라에 큰 리익을 주었다. 또한 사업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제한된 종업원수로 맡겨진 대상과제수행과 사업소관리운영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하나에서 열, 백을 얻는 비결,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이들처럼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자기 사업에 대한 깊은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며 실천에 옮길 때 작은것에서도 큰것을 볼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

* *

이 단위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것이 있다.

오늘날 일군들이 발휘해야 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은 곧 비상한 창조정신이며 일군들의 실력은 곧 피타는 사색과 창조의 결과이라는것이다.

이곳 사업소일군들의 경험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높은 창조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당정책관철의 1번수가 될 때 자기 단위사업에서 근본적인 비약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심학철

씨뿌리기준비에서 중시한 문제

신천군 온천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신천군 온천협동농장 일군들이 씨뿌리기준비에서 중시한것이 있다. 종자처리문제이다.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적지 않은 논면적에 논벼긴싹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였다. 많은 종자를 싹틔워야 하는 조건에서 그에 맞는 싹틔우기장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였다. 그래서 일부 종자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 싹틔우기를 하였다. 그러다나니 종자싹틔우기가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될수 없었다. 빛조건 등 일정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직사광선을 피해 나래를 덮어주었더니 록화가 잘되질 않았다. 또한 종자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주니 싹만 길어졌던것이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논벼긴싹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싹의 록화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잘하는데 있지 않는가.

뜻깊은 올해에 다수확을 거두자면 씨뿌리기의 첫 공정인 종자처리부터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야 한다. 다수확은 종자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작업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벌려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들은 올해에도 그 우월성이 확증된 논벼긴싹큰모재배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목표를 세우고 그에 필요한 종자량을 정확히 타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종전과 같은 싹틔우기장을 하나더 만들어놓기로 하였다.

즉시 조직사업이 따라서고 실천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자재보장이 따라서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싹틔우기장이 꾸려지게 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만족할수 없었다. 이들은 종자선별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 종자처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자면 이 사업을 선행시켜야 하였기때문이였다. 이들은 소금물에 의한 방법으로 종자선별을 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지난 시기 물을 리용하여 종자고르기를 진행하던것보다 종자선별에서 효과가 더 있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종자처리를 하는 농장원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이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모든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애국충정의 일념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적기에 진행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씨뿌리기준비를 예견성있게 전개해나간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진취적이다.

방영진

생산공정의 기술개조에 큰 힘을

명천군세멘트공장에서

명천군세멘트공장의 면모가 나날이 일신되여가고있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면서 세멘트생산량을 늘이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일본새가 돋보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건조계통의 현대화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 세워진 건조계통도 그만하면 괜찮은데 왜 또 공사를 벌려놓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저었다.

일리는 있었다. 공장에서는 지난 기간 생산공정들을 도적인 본보기가 될수 있게 꾸려놓고 맡겨진 세멘트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여 일 잘하는 공장으로 소문을 내고있었다.

하지만 공장일군들은 이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공장일군들은 말하였다.

물론 다른 공장들에 비해볼 때 괜찮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끊임없이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공장일군들은 건조계통의 현대화를 실현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종업원들은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섰다.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공장일군들은 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는 방법을 착상하게 되였다. 그들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곧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건조계통을 현대화하였다.

건조계통의 현대화를 실현한 실효는 컸다. 많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세멘트생산량은 현저히 늘어났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종업원들 누구나 실천으로 체득한 좋은 계기였다.

종업원들은 생산에 이바지하는 기발한 착상을 가지고 떨쳐나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자

발전설비현대화이자 생산성과

자강도중소발전관리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에 새긴 자강도중소발전관리국의 일군들과 중소형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증산투쟁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자강도는 중소형발전소건설과 운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새겨안은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장자강과 북천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하천들에 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해놓았다.

도중소발전관리국에서는 이미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설비관리, 기술관리, 물관리를 잘하도록 기술지도를 앞세우는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입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해인 올해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였다.

여기서 초점을 모은것은 물량이 적은 조건에서 중소형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은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는 지름길은 다름아닌 전력생산에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있다는 판점을 가지고 작전을 펼치였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국장과 기사장, 전력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 나가 설비들의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한개 대상씩 맡고나가 전력생산조직과 지휘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흥주청년1호발전소에 나간 관리국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강계정신을 창조하던 그 본때대로 로동자들과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며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전력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흥주청년2, 3호발전소와 성간군을 비롯한 시, 군중소형발전소들에 달려나간 일군들과 연구사들도 물높이를 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장치를 연구개발하여 고수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결과 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의 운영을 보다 과학화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또한 발전소들의 보수를 다그쳐 끝낼수 있게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회천3호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수차효률을 높이고 진동을 방지할수 있게 하였다. 이 성과에 기초하여 그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발전기당 평균출력을 올릴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였다. 또한 수차에 들어가는 물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새롭게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흥주청년1, 3호발전소들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하게 벌리면서 콤퓨터에 의한 실시간 전력감시체계를 받아들여 운영관리를 보다 과학화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들의 수차효률을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우시1호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 기술자들은 1, 2, 3호발전기들의 려자장치프로그람을 개발한데 이어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합심하여 발전기술을 개조하고 초음파에 의한 수위측정장치를 받아들여 매일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다른 중소형발전소들에서도 발전설비현대화에 힘을 집중하여 고수위에 의한 전력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관리국에서는 현행전력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현재 건설중에 있거나 앞으로 건설하게 될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과학화할수 있게 하는 사업도 짜고들었다.

전력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새로운 프로그람을 완성하여 설계의 과학화를 실현하였으며 타빈회전수를 검측할수 있는 측정기도 연구개발하였다.

관리국의 일군들과 도안의 중소형발전소 전력생산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순홍

—장강2호발전소에서—

전력량조종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청진시중소형발전소운영사업소에서

최근 청진시중소형발전소운영사업소에 확립된 새로운 전력량조종체계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어느 한 개소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거나 련결하려면 종업원들이 많은 거리를 오가야 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이러한 편향을 없애고 시안의 수천개소에 대한 전원공급을 한명의 조종공이 조종실에 척 앉아서 콤퓨터로 조종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맞게 전력공업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사업소에서는 지난 기간 생산된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인민들이 덕을 더 잘 보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 과정에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여 많은 전력예비를 찾았으며 전력공급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었다. 전원공급과 차단이 그 대표적실례였다.

필요에 따라 전원공급과 차단을 하자면 부득불 많은 거리를 오고가며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전력공급을 개선하며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면 수천개소에 대한 전력량조종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새로운 전력량조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짧은 기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일군들은 이것을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할것을 결심하였다. 당조직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시험실 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연구집단이 조직되였다.

일군들은 종업원들속에 새로운 전력량조종체계확립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켜주었다. 기술자들과 함께 사색과 탐구의 밤을 밝히기도 하고 연구에서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었다. 기술자, 종업원들속에서 탐구되는 좋은 안들은 집체적토의에 붙여 현실에 도입하였다. 조종장치제작에 필요한 자재구입에도 종업원들모두가 떨쳐나서게 하였다. 이러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은 기술자들에게 큰 힘이 되였다.

실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며칠밤을 꼬박 새워가며 기술자료들을 파고들었으며 도와 중앙의 해당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프로그람개발과 무선통신련결에 대한 전문지식도 습득하였다. 한장한장의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 이들이 걸은 밤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 나날에 이들은 새로운 전력량조종장치설계를 완성하고 수많은 프로그람들을 개발할수 있었다. 시험과정에 실패가 거듭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맥을 놓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일군들은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기 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연구집단이 주저앉지 않고 연구를 끝까지 내밀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콤퓨터도 해결해주고 장치제작에 필요한 자재들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 연구조건과 생활조건보장에도 많은 관심을 돌리였다.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이들의 연구를 적극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연구집단은 수십차례의 실패에도 주저하지 않고 과학연구를 힘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새로운 전력량조종체계를 확립할수 있었다. 결과 전력관리를 능동적으로 할수 있게 되였으며 전력공급사업이 훨씬 개선되게 되였다. 이로 하여 얻는 국가적리익과 경제적실리는 컸다.

새로운 전력량조종체계확립을 통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간직한것은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만부하의 동음 세차게

연탄군에서

연탄군에서 발전소정상운영에 큰 힘을 넣어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더 많은 전력을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 보내주어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연탄군당위원회에서는 전력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는 한편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침입식으로 힘있게 벌려나갔다.

군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많은 량의 변압기기름을 비롯한 발전소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군책임일군부터가 전력생산자들을 찾아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고무도 해주고 성의껏 주고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이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대에서는 발전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와 구조물보수정비에 힘을 넣고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기대공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올해에 들어와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발전기운영에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뒤이어 이들은 물관리이자 곧 전력생산실적이라는 관점밑에 한방울의 물도 허실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놓았다.

전력증산의 비결은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이들은 설비점검과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불비한 개소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미리미리 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웠다.

이와 함께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전력생산과 공급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연탄1호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였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과학기술에 전력증산의 예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발전기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전력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들에게 뒤질세라 연탄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발전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다루면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금 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대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열의밑에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조절못정리에서 얻은 증산예비

대홍단발전소운영사업소에서

얼마전 군안의 발전소들의 실태를 료해하던 대홍단발전소운영사업소 지배인의 생각은 깊었다.

발전소들에서 전기생산량이 낮아지고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다음날 지배인은 책임기사와 함께 대홍단1호발전소로부터 대홍단5호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돌아보았다.

대홍단5호발전소는 물량이 예상보다 부족하였다. 그러나 대홍단1, 2, 3, 4호발전소들은 물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 저수지에서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들기때문이였다.

이 4개의 발전소에서 전력증산예비를 찾는것이 유일한 방도였다.

현지에서 조사해보니 걸린 고리는 조절못에 있었다.

강추위로 인하여 발전소들의 조절못 물문에 걸리는 잡물들이 얼음을 안고 엉켜붙어있어 물이 쭉쭉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의 형편에서 가만히 앉아서 얼음이 녹기를 기다릴수가 없었다.

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조절못들을 정리하기 위한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로동자들은 조절못에 있는 얼음을 까내고 물문에 걸린 잡물들을 건져내였다.

우등불로 추위를 물리치며 결사관철의 기상을 떨쳐가는 그들을 위하여 군에서는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였다.

며칠사이에 조절못들이 정리되였다.

조절못을 가시기 바쁘게 발전기들의 동음은 더욱 높아졌고 여기에서 많은 전력을 증산하게 되였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 걸린 문제를 솔선 앞채를 메고 풀어나가는 완강한 실천력이 낳은 결실이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성천강30호발전소에서

성천강30호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최대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전력증산투쟁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고조시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이 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업간점검, 순회점검을 강화하여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특히 물량이 적은 조건에 맞게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욱 잘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자동려자방식을 받아들여 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이곳 기술자들은 최근에 발전기메탈의 수명을 훨씬 늘이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수문보수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한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고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매일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지방공업공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특파기자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 개막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제5차 전국3대혁명소조기술혁신전시회가 개막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받들고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심장에 새기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정에 이룩한 75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기간 현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가설 및 착상발표회도 있게 된다.

개막식이 2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평해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위원회, 성, 중앙기관,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3대혁명소조원들, 3대혁명소조과견단위 일군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그 심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여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이 실천투쟁속에서 이룩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며 기술혁신성과들을 현실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다수확의 비결은 과학농사에 있다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차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에서는 2월 중순까지 수십정보에 달하는 저수확지들에 흙깔이를 진행하고 모든 포전들에 계획된 자급비료와 흙보산비료를 반출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또한 농장자체의 힘으로 비닐박막과 뜨락또르부속품을 비롯한 영농자재들을 원만히 갖추어놓고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우량종자확보사업도 끝내였다.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농장의 일군들이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도를 토의할 때였다.

농사차비를 잘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리당위원장의 마음은 선동원들에게 가있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서 선동원들의 역할이 크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선동원들의 심장이 먼저 끓어야 농장원들의 가슴도 달아오르게 되고 농장벌도 끓어번지게 된다.

사실 농장일군들이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데는 그럴만한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 목표를 세웠다.

온 농장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끝내기 위한 전투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들끓는 전투장들을 돌아보던 어느날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의 실적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는것을 알게 되였다.

원인을 분석해보던 과정에 선동원들의 역할과 크게 관계된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다. 선동원들이 전투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며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는 단위에서는 실적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그렇지 못한 단위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였던것이다.

농장일군들은 지체없이 선동원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경쟁이 조직되였다.

선동원들은 실천적모범을 보이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그들은 새벽이면 남먼저 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가 제일 늦게 퇴근길에 오르군 하였다.

선동원들의 실천적모범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위력을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농장에서는 올해농사차비에서 선동원들이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거름생산으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 농장원들의 심장을 끓게 하는 화선식선동을 드세차게 들이대며 선동원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선동원들이 혁명적인 총공세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고 호소하며 실천적모범을 보이니 그들의 뒤를 따라 모든 농장원들이 거름생산전투에 너도나도 열정적으로 뛰여들었다.

농장벌은 그야말로 새해농사차비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되였고 이 과정에 농장에서는 자급비료와 흙보산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농장의 일군들은 년초에 필지별에 따르는 토양분석을 진행하고 우량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또한 과학농사에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예비가 있다는것을 지난해농사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절감하였다.

지난해 농장에서는 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방법을 받아들이면서 흙깔이를 하고 계획한 량의 흙보산비료를 낸 포전과 종전처럼 거름을 낸 포전에 여러가지 다수확품종들을 심었다.

대비시험결과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흙깔이를 하고 흙보산비료를 낸 포전에 심은 다수확품종의 정보당 논벼소출이 거름만 낸 논들보다 대비도 안되게 높았던것이다.

결정적으로 지력을 높이고 계획한 량의 흙보산비료를 내면 얼마든지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찾은 교훈이였다.

지난해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해에 들어와 농장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모든 포전들에 대한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농장에서는 여러가지 우량품종들을 알맞는 포전에 배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작업반, 분조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다.

농장일군들은 과학농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킬 결의안고 농장원들에 대한 기술학습, 기술전습에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온 농장이 떨쳐나 저수확지들에 흙깔이를 진행하고 자체의 힘으로 지효성알비료생산기지를 꾸려놓아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부족되는 영농자재들과 뜨락또르부속품들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해결함으로써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도적으로 제일 앞서나가는 농장으로 이름떨치고있다.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얼마전 농장에서는 도적인 씨뿌리기보여주기가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모든 영농공정들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알심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없이 알곡증산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안고 당면한 씨뿌리기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세네갈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세네갈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세네갈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채희철동지가 임명되였다.

로씨야련방 정부경제대표단 귀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8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정부경제대표단이 22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외경제성 부상 리광근동지와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춘의 영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위훈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있는 청년동맹일군들속에는 라선시청년돌격대 김수성동무도 있다.

라선시의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던 그는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여갈 결심을 안고 돌격대에 입대하였다.

입대후 그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대오의 앞장에 섰다.

그는 단천발전소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끝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제일 선참으로 건설장으로 달려나갔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리는 발전소건설의 나날 그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돌격대원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동지들을 위해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군 하였다.

자신보다 조직과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김수성동무를 돌격대원들은 언제나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로농통신원 강순녀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인재강국의 기초를 다져가는 교원혁명가의 긍지와 보람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 교장 인민교원 하명화동무에 대한 이야기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처음으로 배출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가운데는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여온 선교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선교초급중학교 교장 하명화동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입니다.》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밀어주는 더없이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을 다방면적이며 알찬 지식을 소유한 나라의 기둥감, 앞날의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 인재강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해온 하명화동무.

뜨거운 충정과 깨끗한 량심, 무한한 헌신으로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여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 교육자들의 삶이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가를 깊이 새겨준다.

값높은 애국의 열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성스러운 교단에 선 교육자의 애국심은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정으로 표현된다.

하명화동무의 교원생활은 그의 모교인 강동군의 한 중학교에서 시작되였다.

수십쌍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모아진 가운데 흥분된 마음으로 첫 수업을 하고난 그가 교실문을 나서는데 《선생님!》 하는 부름소리가 났다. 설마 신임교원인 나를 찾으랴 하는 생각에 빨갛게 단 얼굴을 수그리고 걸음을 다우치는데 여러명의 녀인들이 그를 둘러쌌다.

《선생님, 우리 애들을 부탁합니다.》

그의 손을 부여잡으며 깍듯이 인사하는 그들은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그를 《명화야!》라고 허물없이 찾던 고향마을녀인들이였다.

그들의 존경어린 인사말, 하많은 기대가 실린 진정넘친 눈빛앞에서 하명화동무는 가슴이 찌르르해났다. 교원들은 부모들을 대신하여 청소년들을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 당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전적으로 교원들에게 맡기고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교시가 되새겨졌다.

그날 하명화동무는 수첩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세상에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가. 어머니들의 그 진정과 소원을 안고 학생들을 나라의 억센 기둥감,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리라.》

그는 이처럼 교육자가 된 자기의 본분에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진정과 소원을 합쳐놓았다. 이제 겨우 20대 초엽의 처녀교원이였지만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아글타글 애쓰는 그의 손끝에서 학생들의 지식은 알차게 영글어 그들이 너도나도 최우등생대렬에 들어설 때 그의 고향마을 집집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하명화동무는 이 땅의 녀인들이 하루 세끼 밥그릇에 멀건 죽물을 담으며 피눈물을 삼키던 고난의 시기에 가정을 이루었다. 남편을 따라 선교구역에 온 그에게 가정의 살림살이에 유리한 직업을 선택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 가나 정탑게만 느껴지는 교정에로 쏠리였다.

그가 평양무진고등중학교(당시)에서 교편을 잡은지 얼마후 학교일군이 그에게 수학소조운영을 맡아해보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남달리 이악하고 실력이 있는 선생에게 수학소조를 맡기면 어쩐지 마음을 놓을것 같다고 하면서 일군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학교졸업생들의 앞가슴에 **김일성**종합대학휘장이 빛나는걸 보면 난 더 바랄게 없겠소.》

그때 하명화동무가 갓난 아기를 품어안은 가정부인으로서 너무도 힘에 부치는 소조운영사업을 선뜻 맡아나선것은 그 일군의 당부에 학교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절절한 소망이 담겨져있음을 절감하였기때문이다.

지식과 실력은 인생의 등불이다. 자식들이 가는 앞길을 환히 비쳐줄수 있다면 자기 한몸을 깡그리 불태운다고 해도 기쁘게 여기는 어머니의 진정으로 하명화동무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초지식을 주고 그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온넋을 바쳐왔다.

등메지구의 여러 주민들은 1990년대에 갓난애기를 업은 한 녀교원이 매일과 같이 깊은 밤 무진천가의 동뚝길을 지나 자기네 마을로 들어서군 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가 바로 학교수학소조원들의 실력을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올리면서도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안타까와하던 하명화동무였다. 학교의 한 분과장을 통하여 그곳에 자연과학분야의 학과목들에 정통한 교육연구원 연구사인 젊은 수재가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통생벌이 되는 그 청년을 찾아가 자기를 《학생》으로 받아달라고 청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수업을 보장하고 수업후 수학소조원들의 학습지도를 하고나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에 류다른 《등교길》에 오르군 하였다.

누가 시키지도 떠밀지도 않은 량심의 길, 학생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책임진 참된 교육자의 진정을 자욱자욱 수놓아간 그 길이 있어 학교에서는 해마다 7.15최우등상 수상자의 대렬이 늘어났으며 수많은 졸업생들이 나래치는 희망과 포부를 안고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나라의 이름있는 대학교정들로 달려갔다.

교장은 학교의 전반사업을 돌보는 일군이다. 하지만 그 무거운 책임과 사업부담도 하명화동무의 높뛰는 심장의 박동파도 같은 학생들에 대한 깊은 정과 사랑을 털끝만치도 덜어내지 못하였다. 17년전 교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는 자기가 친어머니심정으로 돌보고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명으로 늘어났음을 자각하였다.

교장은 교원들보다 학생들과 더 가까와야 하며 교원을 할 때보다 학생들과의 사업에 더 품을 넣어야 한다는것이 하명화동무의 남다른 지론이고 좌우명이다.

그와 오랜 기간 한교정에서 일해오는 분과장 김경희동무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

어느날 교장이 그를 불러 왜 요즘 얼굴색이 좋지 않은가고 물었다. 새로 담임한 학급의 한 애군때문에 속을 썩이는중이였던 김경희동무는 마음속에 층층이 쌓였던 시름을 털어놓았다. 쩍하면 지각, 결석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장난에만 정신을 팔아 학습분위기를 흐려놓는 그 학생을 좋은 말로 달래여도 보고 눈물이 찔끔 나게 호된 꾸중도 하였으며 가정방문도 해보았지만 어느 하나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저도모르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 학생은 정말 어찌는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평시에는 늘 밝은 웃음이 비끼군 하는 교장의 얼굴에 어두운 빛이 어리는것이였다.

《그럼 몹쓸 학생이라는 건데…》

말끝을 흐리며 생각에 잠겼던 교장은 자기가 그 학생을 만나보겠다고 하는것이였다.

그후 교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를 그 학생과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였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는 학생과 꼭 마주앉아 한주간 학습과 생활정형을 총화하고 학급동무들과 나라를 위하는 어떤 좋은 일을 찾아하였는가를 알아보았으며 잘한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것은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하명화동무가 교장으로 일한 지난 10여년간 그의 이런 남다른 노력에 의하여 성적과 품행이 몰라보게 달라진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안고 새 세대들모두를 나라의 억센 기둥감으로 키우려는 참된 교육자의 진실하고 지극한 정이 학생들만이 아닌 교원들의 가슴마다에도 흘러들었다.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놀라움속에 지켜보며 김경희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화원에서는 버려질 나무가 한그루도 있어서는 안되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철리로 아로새기였다.

아침마다 학교운동장을 꽉 채우며 들어서는 학생들을 볼 때면 하명화동무는 저 수많은 아이들의 소질과 희망을 어떻게 하면 다 찾아내고 다 꽃피울가 하는 생각에 잠기군 하였다.

몇해전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소조들을 내오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소조를 조직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을 료해해보니 수학소조나 외국어소조, 음악소조, 체육소조에 들고싶어하는 학생수는 많았으나 지리소조를 지망한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불과 몇명때문에 한개 학과목소조를 조직할수야 없지 않겠는가고 하는 교원들에게 하명화동무는 절절히 말하였다.

《단 한명이 바란다고 해도 소조를 내와야 합니다. 한두명의 학생을 위해 분교를 일떠세우고 교원들을 보내주는 나라에서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후 하명화동무는 책임성높은 교원을 지리소조교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지리학습터를 잘 꾸리고 소조운영을 다양하게 짜고들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소조에 망라되여 조국에 대한 소중한 사랑의 마음을 싹틔우게 하였다.

하명화동무의 책상우에는 언제나 학생들의 평상시학업성적과 시험성적이 놓여있다.

그는 종합된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지나는것이 아니라 몇학년 몇반의 누구누구가 지난 시기보다 성적이 높아졌으며 어떤 학생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가, 이전보다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들은 또 누구누구인가를 차근차근 따져보군 하였다. 그 과정에 매 학생들의 지적수준, 소질과 취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에 맞게 교원들이 학습지도를 따라세우고 소조활동을 벌리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발성과 학과실력을 최대한 높여나갔다.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전까지 학교에서는 수많은 졸업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대학들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였으며 지금은 해마다 80여명의 학생들을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재양성기지로 보내고있다.

나라의 수많은 대학들과 수재양성기지들에서 조국의 골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 바로 그들이 하명화동무와 같은 참된 교육자들이 온넋을 다해 가꾸어가는 애국의 소중한 열매가 아니랴.

교정의 참된 모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스승이 교원이라면 교원들의 스승은 교장이 되여야 한다. 이것은 하명화동무의 사업 전과정에 흐르는 일관한 원칙이다.

대체로 신임교원들은 한해가 잘 걸려야 교원의 체모를 갖추게 된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다름아닌 하명화동무였다. 그 기간을 단축할수록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신임교원들의 자질을 하루빨리 높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수업참관에 모를 박았다.

그런데 가뜩이나 긴장하여 교탁에 나선 신임교원들은 학급의 맨 뒤자리에 앉아있는 교장을 보고서는 더욱 당황해하며 품들여 준비한 설명조차 제대로 못하는것이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하명화동무는 신임교원들의 교수를 수업전날에 보아주기로 작정하였다.

하루수업이 끝난 후에도 교실마다에서 학생들이 과외복습을 하는 조건에서 그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자면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심하던 그는 교장실에 칠판을 하나 가져다가 걸어놓고 신임교원들에게 수업준비가 다되면 아무때나 찾아오라고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교장실로는 신임교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교수내용은 물론 교수안의 표현 하나, 문구 하나, 강의억양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는 그에게서 통과되기란 헐치 않았다.

그날도 한 처녀교원은 늦은 저녁에 여섯번째로 교장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교장이 의자에 앉은채로 솔곳이 잠든것이 아닌가. 한 가정의 주부인 교장을 늦게까지 붙잡아놓은 자신을 자책하며 그는 되돌아섰다. 그가 어느 한 교실에서 열심히 강의훈련을 하고있는데 교장선생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이였다.

왜 교장실에 오지 않고 여기서 혼자 훈련하는가고 하는 그의 물음에 한동안 머뭇거리던 처녀교원은 교장선생님한테 미안해서 그런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교장은 정색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나 한사람한테 미안한것은 별일없지만 나라의 억군이 되여야 할 숱한 학생들을 똑똑히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일입니다.》

교장실의 작은 칠판앞에서 신임교원들은 교수방법만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앞에 나선 참된 교육자의 자세와 립장에 대해서도 가슴깊이 새기였다.

이렇듯 하명화동무가 휴식도 밤잠도 줄여가며 애쓴 보람이 있어 신임교원들은 불과 두석달안팎에 능력있는 교수자들로 자라났다.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될 때에는 교원들이 교재내용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과 같이 진행된 본보기수업과 교수합평회에 쭉쭉 참가하여 부족점을 깨우쳐주고 강의가 잘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학교에서 10여개 학과목에 대한 실리있고 우월한 본보기교수방법을 전국에 일반화한것도 교원들을 새 교육강령집행에로 힘차게 이끌어온 하명화동무의 피타는 노력의 결실이다.

선교초급중학교는 우리 나라 교육력사에서 중요한 해인 2014년 여름에 3중영예의 붉은기칭호를 수여받았다.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달려온 지난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던 뜻깊은 시기에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진행되였으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포성이 온 나라를 진감하였다.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긴 하명화동무는 대회장에서 오는 그길로 학교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학교교직원들이 배심을 틀어 이룩한것이 여서 그리도 자랑스럽던 성과들이 미흡하게만 안겨왔다.

다음날 그가 교원모임에서 학교가 새로 달성해야 할 방대한 목표들을 제시하였을 때 교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만하면 교육자들의 자질에 있어서나 교육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시적으로 앞선 수준에 있지 않는가고 하는 그들에게 하명화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은 다름아닌 이 땅의 새 세대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혁명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3중영예의 붉은기학교인 우리 학교가 그 앞장에 서야 합니다.》

비약하는 시대에 학교를 새 세기 교육혁명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새로운 창조의 전구로 되게 하려는것이 그의 드팀없는 의지였다.

충정의 70일전투의 나날에 학교교직원들을 불러일으켜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연구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연혁소개실과 실험실습실들을 새롭게 훌륭히 꾸린 하명화동무는 그해 여름 운동장에 인공잔디를 깔것을 결심하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꾸리기사업들을 거의나 자기 힘에 의거하여 해온 교원들도 그 일만은 어렵게 생각하며 주저하였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우리 교정에도 현실로 꽃피우자고 하는 교장의 절절한 호소는 그들의 심장을 울리였다.

하명화동무 (왼쪽에서 다섯번째)

인공잔디를 까는 작업을 여름방학기간에 기어이 끝내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며 맞들이로 파낸 흙을 져나르고 배수로를 째나간 교직원들.

그 앞장에서 구슬땀을 바쳐 일한 하명화동무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가정살림에 쓰려던것도 아낌없이 내놓았다. 다른 교원들도 자기들의 진정을 바치였다. 자기 자식들에게 더 번듯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이 애쓰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형들과 후원단체들이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하여 공사는 제정한 기일안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학교를 찾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 실내수영장도 일욕심많은 하명화동무와 교직원들, 학부형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훌륭하게 일떠선것이다.

무슨 일에서나 기발이 되여 앞장서 나아가는 하명화동무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말해주는 하많은 이야기들가운데는 그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10여건의 새 교수방법과 교편물을 창안제작하고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닌 사실도 있고 학교에서 제일먼저 학위를 수여받은 사실도 있다.

그가 이룩한 모든 성과의 밑바탕에는 시대적요구에 맞는 높은 실력이 놓여있다. 교원시절에 남모르는 《등교길》에 오르던 때처럼 그는 교장이 된 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중등일반교육과 수재교육과정안의 수많은 교재들과 참고서들을 독파하며 실력을 튼튼히 다진 하명화동무의 뒤를 따라 많은 교원들이 자질향상과 새 교수방법창조에 떨쳐나섬으로써 새 교수방법등록증,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 창의고안증서를 수여받았으며 교원들인 리광은, 진송미동무들은 새 교수방법실현에서 의의가 있는 학위론문을 제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한 하명화동무는 그달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뜻깊은 현지지도로정을 따라걸으며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원들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가를 알았다고 눈물에 젖어 이야기한 하명화동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갈 그의 맹세는 더욱 굳세여졌다.

(우리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려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리라.)

* *

수십년세월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어 조국의 미더운 기둥감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며 사회주의강국, 인재강국의 기초를 억척같이 다지는데 이바지한 교원혁명가의 공로있는 삶을 어찌 시대의 위훈자들의 앞장에 내세우지 않을수 있으랴.

지난 시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하여 영광의 대회들에 참가하였으며 오늘은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사랑의 금반지를 수여받은 하명화동무,

그의 삶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갈 때 영광의 절정에 오르게 된다는 인생의 철리를 새겨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허명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숨은 노력가, 숨은 혁명가들입니다.》

양덕군 양덕소학교를 찾는 사람들은 훌륭히 꾸려진 학교를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밝은 해빛이 비쳐드는 깨끗하고 아담한 교실들과 분과실들, 교편물과 실험실습기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는 여러 실습실들,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교재원…

학교의 어디를 가보아도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쓴 이곳 교직원들의 수고를 느낄수 있다.

자체의 힘으로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양덕군 양덕소학교에서

하나하나의 실험실습기구들과 교편물들에도, 한그루한그루의 나무들에도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량심과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이 학교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비껴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이곳 학교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한 교장은 자기 단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교육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육사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느끼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 교원협의회에서 그는 말하였다.

당에서 바라는대로 학생들을 키우자면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조국의 미래가 우리 교육자들의 어깨우에 실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힘을 합쳐 학교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그의 절절한 호소는 교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학교건물천정공사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내기 위하여 이악하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이들의 일손을 적극 도와주었다.

학교꾸리기에 자기 집일처럼 발벗고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키워가는 교육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가슴깊이 느끼였다.

학교의 교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수교양에 필요한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갖추는 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하여 이들은 짧은 기간에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현대적인 교육수단들과 수많은 직관물들을 훌륭히 갖추어놓았다.

교육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열정을 바쳐가는 과정에 많은 교원들이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들을 받았고 이러한 성과들은 그대로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이어졌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의 정보화를 더욱 훌륭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업,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 등이 새롭게 설계되고있다.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학교사업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결의가 이곳 교직원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룡

새 학년도교수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리원시 운하소학교에서— 본사기자 찍음

교정에 차넘치는 조국보위정신

토산군 백화고급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조국보위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학교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조국보위는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최대의 애국은 조국보위에 있다는것을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배출된 영웅들과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영웅들의 위훈을 보여주는 직관판들과 자료들을 잘 갖추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지은글발표모임, 웅변모임을 비롯한 모임들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얼마전 학교에서는 인민군대에 입대한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를 독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용사로 준비하기 위하여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꼭 위훈을 세우고 영웅이 되여 모교로 돌아오겠다는 결의를 담은 편지들은 학생들의 가슴을 끓어번지게 하였다.

조국이 우리를 부르고있다. 우리가 설자리는 조국보위초소이다. 이런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진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혁명의 군복을 입고 청춘시절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이며 영웅이 될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로농통신원 리광복

자랑찬 성과에 어린 숭고한 자각

순천시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

교원들이 자질향상을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낡은 경험에 매여달리게 되며 현대적인 교수방법을 교수사업에 구현할수 없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의 어디에 가나 볼수 있는 교원재교육강습소는 해당 지역의 교육자들이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부단히 창조하고 도입해나가도록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떠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중요한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재교육사업도 정규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순천시교원재교육강습소에서 시안의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게 되였다. 지난해 전국적인 교수경연에서 순천시안의 여러 학교교원들이 특등과 1등을 쟁취하도록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한 이곳 강습소의 교육자들에게 필경 남다른 비결이 있을것 같아서였다.

정치사상과목과 조선력사, 체육 등 여러 과목을 담당한 이곳 강습소의 지도교원들을 만나보니 과연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다.

당의 의도대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이들은 학교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다매체편집물에 반영하여 커다란 실효를 거두고있었다. 강습소지도교원들이 부단히 학교들에 나가 교수참관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새 교수방법들을 탐구하도록 한것도 참으로 경험적이였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감동을 받게 된것은 그 모든 성과들속에 깃들어있는 이곳 강습소일군들과 교원들이 애쓰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형들과 후원단체들이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학교들을 위한 강습내용을 한건한건 준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합평회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며 새 교수방법들을 찾아내느라 온 집단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밤을 지새우며 탐구한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것 같았다.

비록 학부형들의 따뜻한 인사말 한번 받는 일은 없어도 조국의 미래를 가꾼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교원재교육사업에 새겨가는 이곳 교육자들의 값높은 헌신의 자욱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참된 애국심과 순결한 량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것처럼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이다. 이 고귀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안고 언제나 변함없이 깨끗한 한 모습으로 살며 일하는 바로 여기에 순천시교원재교육강습소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거두고있는 성과의 첫째가는 비결이 있었다.

본사기자 리건

부질없는 제재압박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케케묵은 제재압박타령을 늘어놓고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은 입만 벌리면 《최대의 압박정책》을 견지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그것을 되받아넘기며 현 조선반도정세분위기는 대조선제재가 온을 내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제재소동에 환장한자들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나발이다.

조선반도에 흐르고있는 좋은 분위기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과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때문에 조성된것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것이나 같다.

제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주요내용이며 집중적표현이다. 미국은 제재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압살,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우리 나라에 통하지 않고있다. 까놓고 말한다면 제재와 압박에 기초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한것밖에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제재북통을 열심히 두드려대고있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적으로 규정하고 압살하기 위한 정책들을 끈질기게 실행해왔다. 《적성국무역법》, 《수출관리법》,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을 비롯한 수십개의 각종 법들을 조작하고 집요한 반공화국경제제재를 실시하여왔다. 반공화국경제제재법들에 따라 미국무성의 허가없이는 그 어떤 미국상품과 기술봉사도 우리 나라에 수출할수 없게 되여있으며 우리 공민들과는 그가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통상을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지어 미국은 재미교포들이 공화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단 한푼의 돈도 송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우리와 무역 및 금융거래를 한 미국인과 미국의 기관, 단체들은 수십만US$이상의 벌금과 1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미국은 우리가 지역안정을 위협하며 《반테로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대량살륙무기를 《전파》한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각종 경제제재를 가하여왔다. 리유는 단지 저들과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이것을 턱대고 추종세력들과 어중이떠중이들까지 총동원하여 제재의 도수를 높여왔다. 제재를 가하여 국력을 최대로 약화시킨 다음 군사적공격을 들이대여 타고앉는 전형적인 침략수법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타산을 잘못하였다. 우리에게는 그런 수법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이 그렇게 악을 쓰며 제재소동을 벌려왔지만 얻은것은 쥐뿔도 없다.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주체조선은 더욱더 강해지고 반면에 미국의 운명은 날로 위태로와졌다.

조미대결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였다.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기 위한 《제재결의》라는것을 련이어 조작해냈다. 반공화국제재망에 우리 주변나라들까지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그것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압박으로 될것이라느니,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느니 하며 희떱게 놀아댔다.

끈질긴 제재압박소동에 견디지 못하고 손들고 나앉은 나라들처럼 우리도 스스로 굴복하리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우리 천만군민은 불굴의 혁명정신을 총폭발시켜 새로운 기적적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였다.

우리 조국은 그야말로 세계가 상상할수 없는 비약적인 속도로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우리 인민은 적들의 제재책동에 맞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다.

미국의 제재소동은 우리의 국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어떤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력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 엄연한 현실로 뚜렷이 확증되였다.

국제사회가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최근년간 서방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조선은 가혹한 제재를 받고있지만 경제는 장성하고있다, 평양에서는 눈부신 건축물들이 빠른속도로 일떠서 지난 시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건설번영기는 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약화시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갈것이라는 예측을 뒤집어엎고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 결국 유엔의 대조선제재도 무맥하다는것이 드러났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소동이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더이상 론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초강도제재압박소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패배와 비참한 몰락에 대한 공포와 절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전력사는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적대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과 제재, 봉쇄책동을 자력자강으로 쳐갈기며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찬 력사이다.

조미대결과정은 미국의 압박정책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에서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무모하게 날뛴다면 더 큰 수치와 패배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리 현 도

경 악 을 자 아 내 는 미 군 범 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3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소속 사병 2명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택시운전사를 란폭하게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료금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택시운전사에게 뭇매를 안긴 미군사병들중 한명은 녀자라고 한다.

남조선에서 미군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가운데 미제침략군의 사병년들까지 남조선인민들을 업신여기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며 꺼리낌없이 범죄를 감행하고있는 현실앞에 사회 각계가 분노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 녀자사병들의 범죄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밤늦도록 술을 처먹고 돌아치던 한 미군사병년이 길가던 40대의 남조선주민에게 무작정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한 사실, 술에 만취된 사병년이 여기저기 돌아치면서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실 등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룡산구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로인부부에 대한 미제침략군 사병년의 야수적인 폭행사건은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어느날 변태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명의 남녀와 함께 하숙집에 나타난 미군사병년은 방을 내놓으라고 야단법석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늙은이내외를 발로 걷어차고 두들겨패며 전화선을 뽑아버리는 등 불망종짓을 하였다. 이 야수적인 폭행에 의해 로인부부는 고막이 터지고 허리를 심하게 다쳐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남자이건 녀자이건 가림없이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온갖 치떨리는 범죄행위를 다 감행하고있다. 하지만 이자들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미군당국의 공공연한 비호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보호를 받고있는 미제침략군야수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오만무례하게 날뛰면서 갖은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현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야말로 폭력을 체질화한 날강도무리이며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모진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야수들이 등지를 틀고앉아있는 한 언제 가도 마음편히 살수 없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침략군의 철수를 목청껏 웨치며 반미투쟁을 완강히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엄 수 련

철저히 쓸어버려야 할 파쑈독재무리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의 탄핵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초불투쟁을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할 음모를 꾸민 사실이 폭로되였다.

당시 군부패거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탄핵안을 기각하는 경우 초불투쟁참가자들이 소요를 일으킬수 있다고 하면서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투입하는 쿠데타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다.

쿠데타음모내막이 드러나자 바빠맞은 군부판계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 음모에 가담하였던 한 판계자가 특수전사령부무력으로 초불투쟁참가자들을 강경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집회현장을 주시하고있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였다.

이것은 독재통치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피비린 살륙만행도 서슴지 않는 극악한 파쑈군사깡패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혜패당의 극악무도한 범죄적기도이다.

《위수령》은 박정희역도가 군부독재《정권》유지를 위해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이른바 《치안유지》에 군대를 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법화한것이다.

박정희역도는 이 파쑈악법을 리용하여 1979년 10월 독재《정권》퇴진과 《유신헌법》철폐, 학원의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군부가 또다시 보수역적패당의 권력에 빌붙어 무고한 시민들을 총칼로 도륙할 흉계를 꾸미였다고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온 겨레는 군사독재《정권》퇴진과 《유신헌법》철폐,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무참히 진압한 박정희, 전두환군사깡패들의 치떨리는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그 저주로운 악당들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보수후예들이 또다시 남녘땅을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박근혜역도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차별적인 살륙만행도 서슴지 않고 감행할 극악한 살인마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의 《친위쿠데타세력》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독재《정권》잔재인 초법적《위수령》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초불투쟁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역도를 비호두둔하며 저들이 집권하면 《친북좌파세력》을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을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다.

피에 주린 극악한 파쑈독재의 후예들인 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또다시 제2, 제3의 광주참극을 면할수 없다.

돈벌이를 위한 《대통령》감투

남조선에서 희세의 도적왕초인 리명박역도의 죄상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 200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리명박역도는 어느 한 기업으로부터 《당선축하금》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아먹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리명박역도는 어느 한 회사사장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것을 거절할수 없었던 회사사장이 돈을 마련해줄것을 지시하였지만 역도가 요구한 《당선축하금》의 액수는 너무나 엄청난것이였다. 이로 하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에서 몇달간에 걸쳐 돈을 조금씩 떼내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08년 4월 역도에게 3자를 통해 넘겨주었다. 이 회사는 2010년에도 자기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2억원의 돈을 두차례에 걸쳐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역도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실은 이미 리명박역도의 집권시기에 검찰당국이 포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패거리들은 역도의 눈치를 보며 그것을 묵살해버리였다. 현실은 리명박역도가 《대통령》자리를 돈벌이공간으로 리용하면서 기업주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다 못해 검찰당국까지 손에 거머쥐고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감행한 부정부패범죄가 련속 폭로되자 남조선 각계에서는 리명박은 돈을 벌기 위해 《대통령》이 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본사기자

다시금 립증된 《유신》독재자의 죄악

남조선에서 《유신》독재통치시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 모진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박정희군사깡패를 단죄규탄하며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을 광범히 벌리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긴급조치》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하였던 주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였다. 남조선법원은 박정희역도가 조작한 《긴급조치》발령의 불법성과 그에 의한 탄압의 파쑈적성격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 하여 《정권안보》를 비롯한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각종 파쑈악법들을 꾸며내고 불법무법의 폭압령들을 련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애국적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며 사회전체를 하나의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든 박정희역도의 피비린 죄악이 다시금 립증되게 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박정희역도는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유신헌법》의 철폐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자 그것을 탄압말살할 흉계밑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데 이어 1974년 한해에만도 《긴급조치》 1호, 2호, 4호, 6호 등 폭압령을 련달아 내리였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령장도 없이 마구 체포구금하고 몸서리치는 악형을 가하였다.

《유신》독재에 피멍이 든 남조선인민들의 원한은 지금도 구천에 사무쳐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계속 폭로되고있는 박정희역도의 죄악을 통해 《유신》독재야말로 다시는 재현되여서는 안될 파쑈독재와 반인민적폭정, 극악한 인권유린행위의 대명사이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고있다.

본사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1차회의 진행

【베이징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1차회의가 5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주석단회의와 전체회의들이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도간부들을 선거하였다.

습근평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2017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집행정형과 2018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를 비롯하여 여러 안건의 결의들과 감찰법이 채택되였다.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아야 할 보수패당

지금 리명박역도의 범죄행적이 각일각 드러나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다스회사의 실소유주이며 2002년부터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을 불구는 방법으로 350억원이 넘는 돈을 부정축재하고 그 일부를 2007년 《대통령》선거때 리용한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100억원대의 뢰물을 받은 사실, 정보원특수활동비를 횡령한 사실,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아 처먹은 사실 등 역도가 저지른 온갖 범죄들이 드러났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도곡동땅과 BBK로 상징되는 역도의 불법재산조성의혹에 다스회사와 관련된 범죄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리명박역도의 감옥행은 시간문제로 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범죄에 대해 《력사는 리명박을 탐욕의 표상으로 기억할것이다.》, 《MB의 권력형부정부패와 범죄는 기네스기록집에 오를 정도이다.》, 《리명박을 즉각 구속하고 재산 환수하라.》고 분노의 함성을 터치고있다.

특히 박근혜에 이어 전두환, 리명박역도들의 추악한 특대형범죄가 줄줄이 드러나는데 격분한 각계층은 이런자들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보수패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저들이 처한 상태에서 옳바른 반성을 할 대신 재집권망상을 버리지 않고 권력확장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각지를 싸다니면서 《정부의 집요한 정치보복으로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서민경제가 파탄되였다. 1년전보다 나아진것은 없다.》고 떠들다 못해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할 자격이 없다.》, 《집권세력전체를 대청소해야 한다.》고 고아대며 저들에 대한 지지를 구걸하고있다.

《대한애국당》과 친미보수단체를 비롯한 극우보수떨거지들은 《태극기》집회 등을 벌려놓고 《박근혜탄핵은 종북좌파세력들이 조작한 거짓선동음모이다.》, 《초불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좌파독재정권을 몰아내야 한다.》, 《박근혜를 즉각 석방하라.》고 줴쳐대며 남조선사회에 반적폐청산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못된짓도 서슴지 않는 보수패당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보수패당을 력사의 오물통속에 모조리 처넣을 때만이 극악한 살인마, 추악한 범죄자들이 권력의 자리를 가로타고앉는것과 같은 남조선정치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다.

리명박역도의 특대형범죄의 진상 폭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요구

9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리명박역도가 감행한 특대형부정부패범죄의 진상이 드러났다.

그동안 청계재단의 사무국장이며 리명박의 자금관리자인 리병모의 진술과 자동차부분품업체인 다스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역도가 다스회사자산의 80%이상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유하고있었다는것이 확인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역도가 2002년부터 다스회사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자금을 불구는 방법으로 35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부정축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다스지분 80% 사실상 MB차명보유》, 《MB 비자금, 뢰물혐의 총 400억원대 … 검찰 사용처 추적중》 등의 제목으로 역도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리명박심판은 기정사실로 되였다고 전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14일 리명박역도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썩 오래전부터 범죄혐의자였다고 하면서 그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때가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의 중대범죄행위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고서는 남조선에 사회적정의가 바로섰다고 말할수 없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민간인사찰사건, 정보원특수활동비사건과 불법정치공작, 도곡동땅과 다스회사문제, BBK주가조작 등 리명박의 수많은 범죄들은 모두 경중을 가릴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리명박의 특대형범죄를 하루빨리 밝혀낼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노력

1950년 3월 23일 정부적인 국제기구인 세계기상기구가 조직되였다. 이 기구가 창설됨으로써 사람들은 기상기후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수 있게 되였다.

세계기상기구는 이날을 세계기상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하고있다.

지난해 세계기상의 날을 맞으며 세계기상기구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세계기후상태년례성명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강력한 엘니뇨현상으로 2016년에 세계최고기온이 기록되고 바다얼음면적이 류례없이 줄어들었으며 바다물면이 높아지는 등 여러건의 세계기상기록이 세워졌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세계평균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2015년부터 3년동안 련속 고온을 기록하고있는것은 지구온난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지난해 11월 도이췰란드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3차 체약국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는 세계적인 기온상승추세가 앞으로 50년동안 계속될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명활동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다.

례년에 보기 드문 폭우, 폭설, 태풍, 해일과 같은 혹심한 자연재해들은 인류가 이룩해놓은 창조적재부들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고있다. 지어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고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후과는 심각하다.

이것은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고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그에 기초하여 기상관측을 정확히 진행하고 그것을 제때에 예보해주어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운다면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수 있다.

1975년 5월 세계기상기구에 가입한 우리 나라는 기상수문사업의 중요성으로부터 그에 대한 국가적관심을 높이고있다. 기상관측사업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일기, 중기예보사업을 정확히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과 교통운수를 비롯한 인민생활과 경제사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알려주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오늘은 세계기상의 날이다.

정 원 준

우리의 국권, 인권을 유린해온 만고죄악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미조약》의 강압체결

침략선들을 련속 들이밀면서 조선의 자주권을 힘과 모략적흉계로 유린하고 침략의 길을 열어보려던 미제는 매번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그러자 미제는 단독으로 조선을 정복하려던 계획을 일단 포기하고 《동맹자》를 찾았다. 미제는 그 적임자로 일본을 택하였다.

당시 일본은 《명치유신》이후 《정한론》을 내들고 전조선을 지배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길에 금방 들어선것으로 하여 힘이 미약했던 일본은 저들을 뒤받침해줄수 있는 강한 《동맹자》를 찾고있었다.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서로 공모하고 결탁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제는 조선의 내정과 지리에 밝은 일본을 척후병으로 내세워 침략의 길을 닦게 한 다음 그의 도움을 받아 저들도 조선에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획책하였다.

이를 위해 미제는 일본의 외교법률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리젠드르를 내세워 일본정부에 《귀국은 조선과 만주를 병합하여야 한다.》, 《속히 조선을 침략하고 료동을 제어하며 대만을 점령하여야 아시아에서 지도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면서 해외팽창열에 들뜬 일본사무라이들을 든장질해댔다. 그리고는 일제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8 000만발의 보총탄과 2척의 배를 넘겨주었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일제가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자 일본주재 미국공사는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라는 책까지 쥐여주며 페리의 강도적인 《포함외교》전술을 조선에 가서 그대로 적용해보라고 부추겼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일제는 온갖 위협과 사기적방법으로 끝내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강압체결하였다. 미제는 때를 만난듯이 환성을 올리면서 저들도 한시바삐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일본판리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조선봉건정부를 상대로 미국은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등의 갖은 거짓말과 짜리로써야가 남침정책을 추구하고있다는 엄포를 늘어놓게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수호》판계를 맺을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제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세력권확대를 우려하고있던 청나라통치배들을 찾아가 일본이 바야흐로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있으니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이 이 나라를 《보호》해줄것이라고 하면서 이 점을 조선봉건정부에 잘 납득시켜달라고 꼬드겼다.

이렇게 되여 부패무능한 조선봉건통치배들은 마침내 미국과의 회담에 응해나올 립장을 표시하였다. 이때라고 생각한 미제는 군함을 끌고 조선에 기여들어와 1882년 4월 6일(양력 5월 22일) 제물포(인천)에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14개조로 된 《조미조약》을 날조하였다.

《조미조약》은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미제는 조약 제1조에 《평화》, 《우호》, 《원조》라는 순전히 기만적인 문구를 집어넣고 다음 조항부터는 조선에서의 미국상인들의 무제한한 통상의 승인 및 보호, 외교관의 주재, 령사재판권과 미국에 대한 낮은 비률의 관세의 실시, 조선쌀의 수출승인, 미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실시 등을 강압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조선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미제에게는 강도적인 권리만을 규정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미조약》은 그야말로 조선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범죄적문서장이였다.

《조약》체결후 미제는 저들의 공사를 비롯하여 상인, 선교사, 의사, 외교관의 탈을 쓴 침략의 무리들을 공개적으로 조선에 들이밀어 경제적리권을 빼앗아내기 시작하였다.

《조미조약》은 유럽자본주의렬강들이 조선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시초로 되였다.

《조영수호조약》, 《조프조약》, 《조로조약》 등의 련이은 체결로 우리 나라는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 국권은 심히 롱락당하였다.

오늘도 《조미조약》은 선량한 《동맹국》으로 가장하면서 다른 나라에 강도적인 정치경제적특권을 강요하는 미제의 교활성과 침략성을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살인미수사건을 둘러싼 정치적갈등

영국이 23명의 로씨야외교관들을 자기 나라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유는 자국에서 발생한 스크리빨사건에 로씨야가 관여하였다는것이다. 외신들은 이것이 30년래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추방조치라고 전하고있다.

지난 4일 영국의 솔스베리시에서 로씨야정찰총국의 이전 대좌 스크리빨과 그의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것이 발견되였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였으나 아직까지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영국은 그들이 로씨야에서 개발한 독성화학물질에 의해 중독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크리빨은 로씨야군정보기관에서 복무하던 시기 영국에 비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되여 수감생활을 하였다. 2010년에 석방된 후 영국으로 이주해와서 생활하였다.

영국은 이번 사건이 자국을 반대하는 무차별적이고 무모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로씨야에 책임을 물었다. 영국은 자국주재 로씨야대사를 호출하여 스크리빨사건이 로씨야의 《직접적인 행동》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로씨야가 보유하고있는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결과》에 의한것인지 그 여부를 설명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나라들도 영국에 합세하여 로씨야를 공격하고있다.

미국은 성명을 통하여 저들도 스크리빨과 그의 딸에 대한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건의 책임이 로씨야에 있다는 영국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로씨야외교관들을 추방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이 《공정한 대응》이기때문에 그것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4개 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로씨야에서 개발된 무기급신경가스의 사용은 제2차 세계대전이래 유럽에서 처음으로 되는 독성화학물질을 리용한 공격으로 된다. 이것은 영국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며 화학무기금지협약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그것은 우리모두의 안보에 위협으로 된다.》고 로씨야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로씨야는 이것을 국제사회앞에서 자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사건에 자국이 관여하였다는 서방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해버렸다. 필요하다면 사건조사를 방조할 의향까지 표명하고있다.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월로진은 스크리빨사건의 책임은 영국에 있으며 자기 나라에 그것을 전가하는 목적은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까밝혔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은 스크리빨사건을 놓고 영국에서 벌리고있는 일들을 《교예막간극》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도발에 기초한 또 한차례의 정치보도공세이다, 영국은 새로운것을 꾸미기에 앞서 과거 리뜨비넨꼬사건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브로브외무상도 로씨야는 스크리빨사건과 아무런 련관도 없다고 하면서 과거에 로씨야에 책임을 뒤집어씌운 리뜨비넨꼬사건이 끝까지 조사되지 않았다는것을 상기시켰다.

리뜨비넨꼬사건은 이번 스크리빨사건과 매우 류사하다. 지난 2006년 리뜨비넨꼬가 런던의 한 식당에서 원인모르게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리뜨비넨꼬 역시 이전에 로씨야련방안전국에서 근무한바 있었다. 그는 뿌찐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영국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영국은 리뜨비넨꼬가 독성이 강한 방사성물질인 《폴로니움-210》에 의해 독살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것을 로씨야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 다른 서방나라들도 이에 합세하였다.

그때에도 로씨야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그의 죽음을 《로씨야당국이 주도한 독살》로 단정하는것은 자기 나라에 도덕적상처를 입히기 위한 서방의 정치적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해당 사건을 협조의 방법으로 해명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시종일관 《비밀》이라는 미명하에 로씨야와의 합동조사를 거부하고 리뜨비넨꼬사건을 은폐된 방법으로, 비공개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에 와서 그것이 로씨야대통령의 비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또 다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로씨야는 그에 대해서도 《비밀》이라는 외피를 씌우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허위조사로 락인하였다.

현재까지도 리뜨비넨꼬사건은 종결짓지 못한 상태에 있다.

외신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스크리빨사건이 로씨야와 영국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로 되였다고 전하고있다. 실지로 수상메이는 영국이 로씨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지는 않겠지만 고위급쌍무접촉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자국의 립장을 내비친 상태이다.

분석가들은 로씨야와 서방사이의 대립의 골이 나날이 더욱 깊어만지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

ㄱ-81046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